



꾸러기어린이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인건비 지원

자라나는 어린이들

장난꾸러기, 욕심꾸러기 등...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다양하게 담은 의미의 이름입니다. 저마다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춘천시 최초로 만든 비영리 작은도서관으로, 후평2동 주민자치센터 인터넷실을 개조해 800권의 책을 갖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에서 자원 활동을 하던 엄마들은 각종 소모임과 도서관학교 등을 진행하며 춘천시 작은도서관 문화운동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 초창기 자원 활동가들은 여전히 지역 곳곳에서 독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의 2017년은 어떠했나요?



긴급지원119사업은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충전시켜 주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통해 실무자가 자발적인 기획사업을 고민할 수 있었고, 의욕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점이 2017년 꾸러기어린이도서관 활동에 있어 긴급지원119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2017년에는 도서관 내 기획사업으로 진행했던 은유 작가와의 만남 <공감의 글쓰기>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읽기와 쓰기의 힘을 배웠습니다. 작가님의 성품과 사람을 대하는 마음, 편안하게 해주신 말씀 등으로 참가하신 많은 분들이 다들 좋은 느낌을 받았고, 지금도 그때를 많이 떠올리십니다. 함께 했던 모임 회원들은 지원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가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물적 토대가 형성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작가와의 만남도 기획하면 좋겠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네트워크의 매개가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과의 지역연계사업으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데에 도서관이 매개가 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생활협동조합 등 공간과 사람에 대한 구분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갔습니다.

도서관 공간의 활용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책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고 언제든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낮에만 활용되던 도서관 공간을 저녁시간에는 글모임을 진행하면서 그 활용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의 2018년은 어떠한가요?

전문성 있는 동네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생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꾸러기어린이도서관은 동네에서 사랑방으로 역할을



해오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간 지역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더한 도서관으로의 고민을 진행 중입니다.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두고 몇 해 전부터 시작된 고민입니다. 현재 여성도서관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고민을 진척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책을 통해 생각이 커집니다. 책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각이 커지고,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도 자라남을 느낍니다. 바깥도서관 사업은 2017년도에 이어 2018년도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개인은 존중되기도 하지만, 양보해야하는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인의 힘을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